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 현황 분석*

김원**

【목 차】

1. 서론
2. 세계 와인 현황 속의 중국
3. 중국 수입 와인 시장의 발전과 현황
4. 결론 및 전망

【초록】

이 논문은 21세기 들어 세계 와인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에 대한 현황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현재 와인 소비량 세계 5위, 포도재배 면적 2위, 와인 생산량 10위의 거대한 와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와인 시장은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정제된 세계 와인산업에 있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우선 세계의 와인 현황을 포도재배 면적, 와인 생산량, 와인 수출, 와인 수입, 와인 소비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의 현황을 중국 와인 시장의 발전, 수입 와인 시장의 발전 과정과 발전 요인, 수입 와인의 현황, 수입 와인 원산지 국가별 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키워드】 수입 와인, 포도재배 면적, 와인 생산, 와인 소비, 와인 시장, 와인 수출

* 본 연구는 2020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유럽지역통상학과 교수 (kimwon@bufs.ac.kr)

1. 서론

중국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와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해 2020년 현재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와인소비국이 되었다. 포도재배 면적 역시 계속 순위가 올라가 현재 세계 2위이며, 와인 생산량은 세계 10위이다. 중국은 2019년 기준 와인 소비량이 17억 8천만 리터로 세계 5위의 와인 소비국이지만 와인을 마시는 인구는 전체의 3%, 1인당 연간 와인 소비량은 1.5리터로 세계 평균 3.7리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와인시장이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이 1인당 평균 3리터의 와인을 마신다면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8년 중국에서 소비된 와인 18억 4천만 리터 중 수입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에 해당하는 9억 9,680만 리터였다. 액수로는 39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자국 생산 와인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와인제조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역시 중국 와인의 대부분이 아직은 품질 면에서 좋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와인시장은 수입 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수입 와인의 최대 시장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계 와인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포도재배 면적, 와인 생산량, 와인 수출, 와인 수입, 와인 소비량 등을 중심으로 세계 와인 현황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현재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논문의 핵심 주제인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중국에서의 와인 시장의 발전과 수입 와인 시장의 발전을 단계별로 간략히 살펴본 다음 중국에서 수입 와인 시장이 발전하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중국의 수입 와인 현황을 개관한 다음 중국의 수입 와인 현황을 원산지 국가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제와 같은 국내의 선행논문은 거의 없다. 다만 ‘중국와인’을 주제로 최근의 연구들을 검색해보면 제약(2020), 노정희·채군죽(2015), 한은진·노정희(2013), 쟁하이드(2012) 등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중국인 와인소비자들의 수요결정요인과 구매행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현재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중국 수입 와인 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가 현재 세계 와인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이해하는 데에도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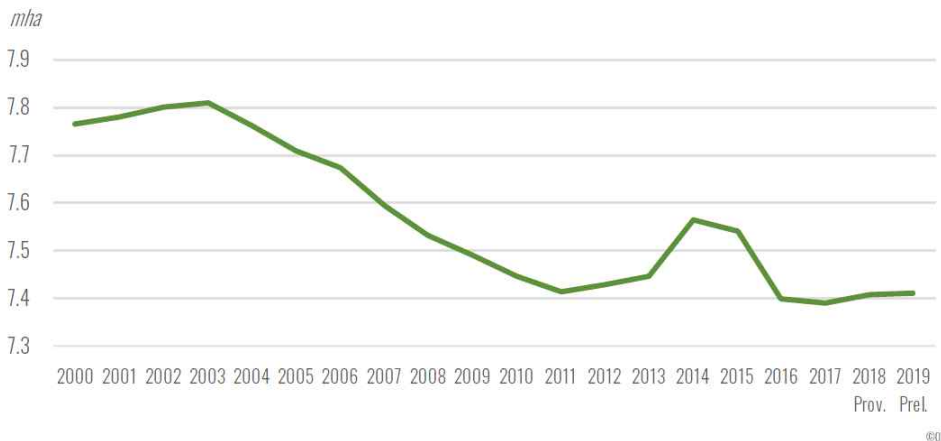
2. 세계 와인 현황 속의 중국

이 장에서는 세계의 와인 현황을 포도재배 면적, 와인 생산량, 와인 수출, 와인 수입, 와인 소비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가운데 중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여기에서 인용한 수치와 도표는 2020년 4월 23일에 열린 국제와인가구(OIV)¹⁾의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2019년 세계 와인산업 동향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다.²⁾

1) 포도재배 면적

<그림1> 세계 포도재배 면적의 연도별 변화

(단위: 백만 헥타르)



*출처 : OIV, 'State of the world vitivinicultural sector in 2019', p.3.

- 1) OIV는 프랑스어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vigne et du vin의 약자이다. 굳이 번역하면 '포도와 와인에 대한 국제기구'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흔히 '국제와인가구'로 칭한다. 회원국의 수는 2020년 현재 47개 국가로, 이들은 전 세계 와인 생산의 85%와 소비의 약 80%를 차지한다. 미국은 회원국에서 탈퇴했으며, 중국과 우리나라도 회원국이 아니다.
- 2) OIV, "State of the World Vitivinical Sector In 2019", 2020.04. <http://www.oiv.int/public/medias/7298/oiv-state-of-the-vitivinicultural-sector-in-2019.pdf> [2020.12.18] 및 OIV, "2019 Statistical Report on World Vitiviniculture", 2019. <http://oiv.int/public/medias/6782/oiv-2019-statistical-report-on-world-vitiviniculture.pdf> [2020.12.18]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의 포도재배 면적은 2016년 이래 거의 변화가 없으며 2019년 기준 740만 헥타르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포도재배 면적은 양조용 포도뿐만 아니라 식용포도와 건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포도밭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포도재배 면적이 가장 컸던 해는 2003년으로 780만 헥타르를 기록했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시적으로 포도재배 면적이 늘었지만 2003년부터 그전까지 꾸준히 줄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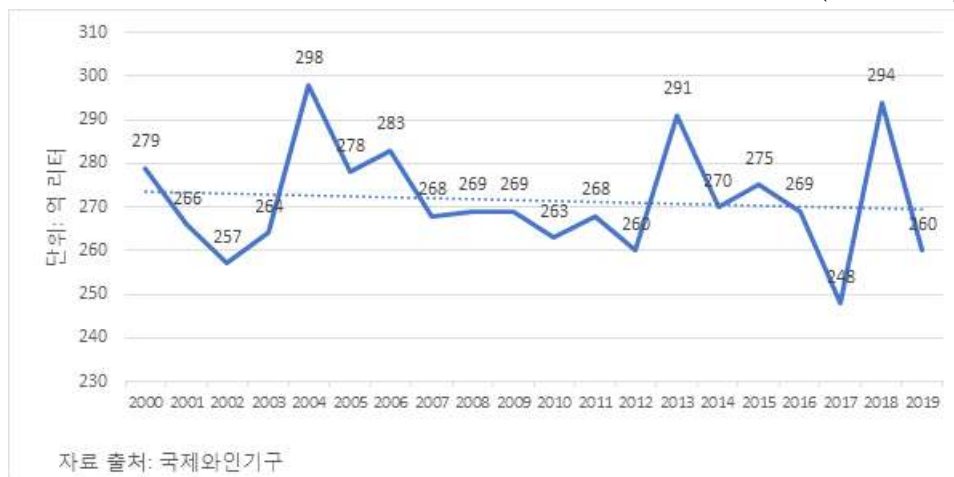
포도밭 면적이 가장 넓은 상위 5개의 국가는 2019년 기준 스페인(13.1%), 중국(11.5%), 프랑스(10.7%), 이탈리아(9.6%), 터키(5.9%)인데 이 국가들의 포도밭 면적은 전 세계 포도밭 면적의 절반이 넘는 50.74%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미국(5.5%), 아르헨티나(2.9%), 칠레(2.7%), 포르투갈(2.6%), 루마니아(2.6%)의 순이다. 이들 상위 10개국의 비중은 67.12%에 이른다. 이외에 세계 20대 포도재배 국가에는 이란, 인도, 호주, 몰도바, 남아공, 우즈베키스탄, 그리스, 독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이 속한다.

중국의 포도재배 면적은 85만 5천 헥타르로 96만 6천 헥타르의 스페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실제 양조용 포도재배 면적은 총 재배면적의 20%에 지나지 않는다.

2) 와인 생산

<그림2> 세계 와인 생산량(주스 및 머스트 제외)

(단위: 억 리터)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서 와인 생산량이 특별히 많았던 해는 2004년(298억 리터), 2013년(291억 리터), 2018년(294억 리터)이었다. 2019년의 경우 총 생산량이 260억 리터로 2018년 대비 11.5%가 감소하였다. 2019년의 와인 생

산량이 평년보다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감소율이 아주 크게 보이는 것은 전년도인 2018년의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특별히 많았던 것에 기인한다. 와인 생산량이 좋지 않았던 큰 원인은 유럽의 주요 와인 생산국에서 기후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예외가 포르투갈로 오히려 2018년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났다.

전 세계에서 상업용 와인을 생산하는 국가의 수는 약 70개국에 이르는데, 그 중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이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한다. 생산량의 60%는 레드 와인이다.³⁾ 세계 3대 와인 생산국인 이탈리아(18.3%), 프랑스(16.2%), 스페인(12.9%)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의 47.4%를 차지하고, 여기에 미국(9.4%), 아르헨티나(5.0%), 호주(4.6%), 칠레(4.6%), 남아공(3.7%)을 더할 경우 8개 국가의 와인생산량은 세계 와인생산량의 74.7%를 차지한다. 9위 독일과 10위 중국을 포함할 경우 80%를 넘는다(2019년 기준).

<표1> 세계 주요 국가의 2015~2019년 와인 생산량(주스 및 머스트 제외)

(단위: 억 리터)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2018 증감	2019년 비중
이탈리아	50.0	50.9	42.5	54.8	47.5	-13%	18.3%
프랑스	47.0	45.4	36.4	49.2	42.1	-15%	16.2%
스페인	37.7	39.7	32.5	44.9	33.5	-25%	12.9%
미국	21.7	23.7	23.3	24.8	24.3	-2%	9.4%
아르헨티나	13.4	9.4	11.8	14.5	13.0	-10%	5.0%
호주	11.9	13.1	13.7	12.7	12.0	-6%	4.6%
칠레	12.9	10.1	9.5	12.9	11.9	-7%	4.6%
남아공	11.2	10.5	10.8	9.4	9.7	3%	3.7%
독일	8.8	9.0	7.5	10.3	9.0	-12%	3.5%
중국	13.3	13.2	11.6	9.3	8.3	-10%	3.2%
포르투갈	7.0	6.0	6.7	6.1	6.7	10%	2.6%
세계 총량	275	269	248	294	260	-12%	100.0%

*출처: OIV, 'State of the world vitivinicultural sector in 2019', p.8의 도표 중 일부 발췌

국제와인기구는 22개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국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포도 재배 면적에서 상위에 위치했던 국가들 중에서 터키, 이란, 인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와인이 아니라 식

3) Victor Kiprop, "10 Leading Wine Importing Countries In The World", 2020.02.09. <https://www.worldatlas.com/articles/10-leading-wine-importing-countries-in-the-world.html>

용포도나 건포도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3) 와인 수출

2019년 기준 국가 별 와인 수출로 인한 글로벌 매출은 2019년에 총 361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와인 수출액은 318억 달러에 달했던 2015년 이후 모든 수출국에서 평균 13.1% 상승하였다.

와인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프랑스로 총 110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와인 수출의 30.4%를 차지했다(2019년 수출액 기준).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가 73억 달러(20.3%)로 2위, 스페인이 31억 달러(8.7%)를 기록했다. 이 세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9.4%에 이른다. 4위 호주(21억 달러, 5.8%), 5위 칠레(19억 달러, 5.3%)까지 합치면 무려 70%가 넘는다. 그 다음으로 미국(14억 달러, 3.8%), 뉴질랜드(12억 달러, 3.4%), 독일(12억 달러, 3.2%), 포르투갈(9억 1,970만 달러, 2.5%), 영국(8억 3,660만 달러, 2.3%), 아르헨티나(7억 9,760만 달러, 2.2%), 남아프리카공화국(6억 6,300만 달러, 1.8%)의 순이다. 전 세계 수출 와인의 73.8%는 유럽에서 생산된 와인이다. 중국은 와인 생산량에서는 세계 10위이지만 와인 수출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크지 않아 9,192만 달러에 해당하는 와인을 수출하여 세계 25위를 기록했다.⁴⁾

4) 와인 수입

2019년 전 세계 수입 와인의 판매 총액은 370억 달러로 326억 달러였던 2015년 이후 평균 13.4% 증가했다. 대륙별로 볼 때, 유럽 국가들이 전체의 50.6%에 해당하는 187억 달러의 와인을 수입했고, 2위는 북미로 23.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멕시코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가 2.3%, 호주와 뉴질랜드가 주도하는 카리브 해와 오세아니아가 2.1%, 아프리카가 1.3%를 차지했다.⁵⁾

세계에서 와인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65억 달러의 와인을 수입한 미국으로 전 세계 와인 수입의 17.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영국(44억 달러, 12%), 독일

4) Daniel Workman, "Wine Exports by Country", *World's Top Exports*. <http://www.worldstopexports.com/wine-exports-country/> [2020.12.18]

5) 와인 수입에 대한 수치는 Daniel Workman, "Top Wine Importing Countries", *World's Top Exports*. <http://www.worldstopexports.com/top-wine-importing-countries/> [2020.12.18] 및 Victor Kiprop, "10 Leading Wine Importing Countries In The World", *Worldatlas.com*, 2020.02.09. <https://www.worldatlas.com/articles/10-leading-wine-importing-countries-in-the-world.html> [2020.12.18]을 주로 참조하였음.

(29억 달러, 7.8%), 중국(24억 달러, 6.6%), 캐나다(19억 달러, 5.3%), 일본(18억 달러, 4.9%), 네덜란드(14억 달러, 3.7%), 스위스(12억 달러, 3.3%), 러시아(12억 달러, 3.1%), 벨기에(11억 달러, 3.3%), 홍콩(11억 달러, 3%), 프랑스(9억 8,830만 달러, 2.7%), 스웨덴(7억 6,780만 달러, 2.1%), 덴마크(7억 3,210만 달러, 2%), 싱가포르(6억 1,110만 달러, 1.7%)의 순이다. 앞에 열거한 상위 15개국이 수입한 와인 구입액은 전체의 78.8%에 달한다(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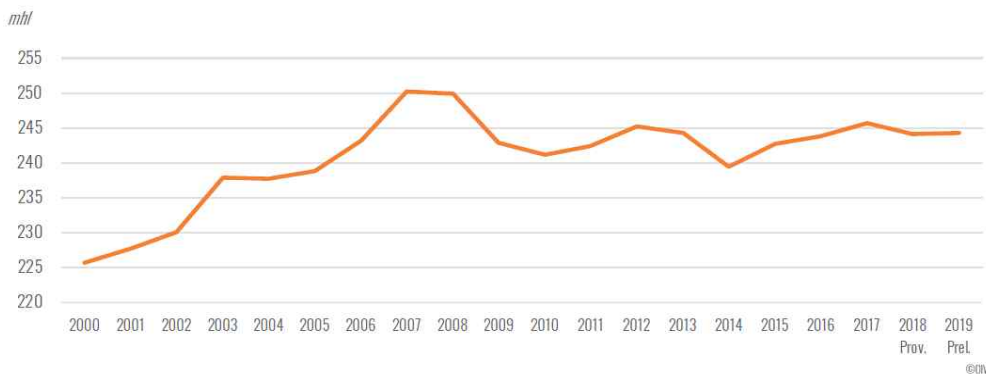
위 국가들 중 2015년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 와인 시장은 러시아(+72.5%), 프랑스(+29.5%), 네덜란드(+24.3%), 일본(21.5%)이고, 반면에 수입 와인의 구매가 감소한 나라로는 홍콩(-19.2%)과 영국(-2.5%)이 있다.

5) 와인 소비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의 와인 소비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꾸준히 늘어나 2007년과 2008년에 정점을 찍을 때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8년 세계의 경제위기 탓에 2009년에 소비량이 많이 줄었고 이후 거의 정체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 2014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조금씩 소비가 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세계의 와인소비량은 244억 리터로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의 성장세에는 주로 아시아 국가와 서부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서의 와인소비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3> 2000년대 와인 소비량의 연도별 변화

(단위: 억 리터)



*출처: OIV, 'State of the world vitivinicultural sector in 2019', p.9.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세계 10대 와인 소비국은 미국(13.5%, 33억 리터), 프랑스(10.9%, 26억 5천만 리터), 이탈리아(9.3%, 22억 6천만 리터), 독일

(8.4%, 20억 4천만 리터), 중국(7.3%, 17억 8천만 리터), 영국(5.3%, 13억 리터), 스페인(4.6%, 11억 1천만 리터), 러시아(4.1%, 10억 리터), 아르헨티나(3.5%, 8억 5천만 리터), 호주(2.4%, 5억 9천만 리터)의 순이다. 이 중에서 중국은 5위를 차지하고 있다.⁶⁾

<표2> 세계 주요 국가의 2015~2019년 와인 소비량

(단위: 억 리터)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2018 증감	2019년 비중
미국	30.9	31.3	31.5	32.4	33.0	1.8%	13%
프랑스	27.3	27.1	27.0	26.7	26.5	-0.6%	11%
이탈리아	21.4	27.1	27.0	26.7	22.6	0.6%	9%
독일	20.5	20.2	19.7	20.0	20.4	2.0%	8%
중국 본토	18.1	19.2	19.3	18.4	17.8	-3.3%	7%
영국	12.8	12.9	13.1	12.9	13.0	1.0%	5%
스페인	9.8	9.9	10.5	10.9	11.1	2.3%	5%
러시아	9.7	10.1	10.4	9.9	10.0	0.9%	4%
아르헨티나	10.3	9.4	8.9	8.4	8.5	1.3%	3%
호주	5.5	5.4	5.9	6.0	5.9	-1.0%	2%
세계 총량	243	244	246	244	244	0.1%	100%

*출처: OIV, 'State of the world vitivinicultural sector in 2019', p.10의 도표 중 일부 발췌

세계 10대 와인 소비국이면서 세계 10대 와인 생산국에 들지 못하는 나라는 영국과 러시아뿐이다. 반면에 세계 10대 와인 생산국이면서 세계 10대 와인 소비국에 들지 못하는 나라는 칠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칠레는 와인 소비에서 세계 21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3위를 차지하였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중국 등 5대 와인 소비국의 와인 소비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세계 10대 와인 소비국 중에서 와인 소비가 10% 이상 증가한 나라는 스페인이 유일하며, 10% 이상 감소된 유일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이다.

2019년 기준 1인당 연간 와인 소비량에서는 포르투갈이 1위(56.4리터)를 차지했다. 그 뒤로 프랑스(49.5리터), 이탈리아(43.0리터), 스위스(36.5리터), 헝가리(29.7리터), 오스트리아(29.4리터), 호주(29.2리터), 독일(28.3리터), 벨기에(27.9리터), 스웨덴(27.8리터)의 순이다.

국제와인기구가 발표한 순위에는 국가 전체의 와인소비량이 2억 리터를 넘는 경우

6) <https://cellar.asia/ko/wine/china-wine-market-analysis/> [2020.12.18]

만 포함되었다. 따라서 벨라루스와 몰도바는 1인당 와인 소비량이 많지만 인구수가 적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위 10위에 속하는 나라 중에서 유럽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호주가 유일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3.2리터로 가장 순위가 높았고, 중국은 1.5리터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현재 인구의 3%만이 와인을 마시지만 이미 세계 5위의 와인 시장이 되었다. 2018년 전 세계 생산량은 292억 리터였으며, 243억 리터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중국은 판매량 17억 9천만 리터로 세계 5위를 차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2019년 중국의 평균 연간 와인 소비량은 1인당 1.5리터로 전 세계 평균 3.7리터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이 1인당 평균 3리터에 도달한다면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⁷⁾

3. 중국 수입 와인 시장의 발전과 현황

1) 중국 와인 시장의 발전

중국의 와인 소비 시장의 발전, 특히 수입 와인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국의 와인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국의 와인 산업이 지금처럼 발전해 오기까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쳤다.⁸⁾

① 초기 단계(1949~1978)

1949년 중국 건국 당시 와인제조사는 고작 5개 업체로 생산량은 200여 리터에 불과했으나 1978년 말에는 와인 기업은 100여 개, 생산량은 640만 리터로 319배나 늘었다. 1954년 중국은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와인을 중점 육성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은 우량 품종을 적극 도입하여 각종 와인 실험에 나서며 포도재배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와인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⁹⁾

② 급성장 단계(1978~2008)

개혁 개방과 사회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중국의 와인 산업은 빠른 성장기

7) 세계 온라인 통계 사이트 Statista.com가 작성한 「2019-2023년 세계 와인 소비 예측 보고서」. 이를 putaojiu.com의 「2019-2023年全球葡萄酒消费预测报告新鲜出炉」(2019.10.24.)에서 재인용(<https://www.putaojiu.com/news/201910278939.html>).

8) 刘世松, 「中国当代葡萄酒产业发展阶段研究」, 『酿酒』, 42 (3), 2015, pp.5-9.

9) 王秋芳, 「葡萄酒业五十年的光辉成就」, 『酿酒』, 5, 1999, pp.15-23.

에 접어들었다. 1984년 중국은 최초의 와인 표준인 『와인 및 와인 실험방법(葡萄酒及其试验方法)』(QB921-84)을 제정 공포하였다. 1988년 중국의 와인 생산량은 30여만 킬로리터에 달했지만, 혼합 와인 비중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그 후 1994년 중국 정부는 종전 규정보다 훨씬 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와인국가표준인 『포도주』(GB/T15037-1994)를 제정하였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수출입 무역은 왕성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와인 붐’도 일어났다. 2004년 중국의 와인 수입 관세가 44.6%에서 14%로 낮아지면서 와인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2006년 중국 정부는 국제와인기구의 일부 규정을 참고해 새로운 국가 표준 『포도주』(GB15037-2006)를 반포하였다. 이 표준은 2008년부터 공식 발효되었는데, 종전 규정과 다른 점은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와인 산업은 개혁 개방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고속 성장을 구가하기 시작했다.

③ 조정 및 고도화 단계 (2009~2020)

21세기에 와인 산업은 매년 20%의 증가폭을 이어가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와인 생산업체 수가 늘어나고 생산 기술력과 관리능력도 함께 향상되었다.¹⁰⁾ 그러나 2012년에 들어 경제 발전 속도가 둔화되면서 같은 해 12월에 중국 정부가 ‘금주령(禁酒令)’, ‘팔항규정(八项规定)’¹¹⁾ 등 술의 생산과 소비를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와인 업종은 지속적인 침체 위기에 빠져들었다. 2013년과 2014년에 들어 생산량의 지속적 감소와 저조한 실적은 와인 산업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 와인 산업은 중대한 조정과 혁신에 직면했다. 그 후 수입 와인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고 거래 문턱이 낮아지면서 수입 와인이 대거 유입되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과 발전은 기존의 전통 와인 업계의 경영 방식을 잠식하는 한편 와인 산업의 전반적인 혁신과 고도화를 촉진시켰다.

중국은 현재 생산 지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와인 생산 지역을 정확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중국의 와인 산지는 산둥(山东), 허베이(河北),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쑤시(山西), 산시(陕西), 지린

10) 赵悦汝, 『进口葡萄酒在中国市场的营销策略研究』, 天津大学硕士学位论文, 2012, pp.12-14.

11) 시진핑 정부의 공무원 사치 금지 제재의 일환으로 2012년 12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규정으로 ‘삼공경비(三公经费)’ 절감 즉,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 경비, 공무차량 구매 및 유지비, 공무접대비 등 3대 공무집행비의 절감을 목표로 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하여 지방정부의 국가 예산 사치 및 낭비를 엄격히 통제했는데, 그 영향으로 중국 요식업체는 개혁개방 35년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바이주, 고급 시계, 명품 핸드백, 넥타이, 귀금속 등 고가 상품의 판매량 역시 감소했다. 이에 대해서는 “청렴정부로 휘청거리는 중국 고급식당, 고객층을 넓혀야 산다”, 2013.08.26,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23786> [2020.12.18]

(吉林), 랴오닝(辽宁), 신장(新疆), 닝샤(宁夏), 간쑤(甘肃), 네이멍구(内蒙), 윈난(云南), 쓰촨(四川) 등이 있다.¹²⁾

2) 수입 와인 시장의 발전

수입 와인의 중국 시장 발전 과정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¹³⁾

① 계몽기(1996~2000): 이 시기에 중국인들은 와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와인을 고가품으로 오해하여 사치품으로 여겼다. 상하이, 베이징, 광둥 등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도시를 중심으로 수입 와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② 맹아기(2001~2007):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이는 중국의 수입 와인 업계에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주었다. 수입 관세가 44.6%에서 14%로 낮아지면서 와인 수입이 늘었고 특히 고품질 와인이 중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다.¹⁴⁾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중국인이 늘면서 프리미엄급 와인에 대한 수요층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요 또한 크게 성장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의 와인 생산국들은 이러한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와인 문화를 중국에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수입 와인은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다. 중국 본토 와인 기업인 왕차오(王朝), 창청(长城), 장위(张裕) 또한 이 시기에 와인 업계의 굴지 기업으로 성장했다.

③ 발전기(2008~2012):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가 열리면서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OEM 제품의 중국 내 출현은 중국인들의 소비 관념을 변화시켰고, 소비에서 품위, 고상함, 차별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와인 수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데 큰 요인이 되었다.¹⁵⁾

④ 조정기(2013~2020): 중국의 경제 산업의 구조 조정과 조치는 수입 와인 소비자를 크게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삼공소비(三公消费)’ 제한 정책의 추진으로 고급 바이주(白酒)의 소비가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와인 산업의 발전 또한 점차 둔화되었다.¹⁶⁾ 이를 타계하기 위해 중국 국내 와인 업체들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15년 들어 수입 와인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와인 업계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중

1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ecanterchina.com/en/regions/china/> 참조.

13) 王德惠, 『中国进口葡萄酒的二十年』, 2016. <http://www.winesinfo.com/html/2016/7/654-66228.html>

14) 李甲贵·贾金荣·张静, 「进口关税下调对我国葡萄酒市场的初步影响」, 『酿酒科技』, 1, 2008, pp.110-112.

15) 刘一博·朱欣悦, 「贴牌进口葡萄酒扰乱市场」, 『食品界』, 5, 2015, pp. 50-51.

16) 高全朋, 「未来两年进口葡萄酒市场的发展趋势」, 『电子制作』, 5, 2013, p.244.

저가 와인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¹⁷⁾ 그러나 2018년 경제 침체의 압력과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외부적 요인 때문에 와인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수입 와인 시장의 발전 요인

중국의 와인시장에서 수입 와인의 비중이 커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⁸⁾

첫째, 정치적 요인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수출입 무역이 왕성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와인의 수입 관세가 낮아지고 수입 와인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많은 와인 브랜드가 중국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중국인의 소비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와인 소비량도 빠르게 성장했다.

중국은 현재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 곡물을 사용하는 바이주나 맥주 대신 과일주를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결과 와인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와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품질 미달의 와인까지 시장에 나오고, 심지어 와인에 대한 소비자의 무지를 악용해 가짜 와인 판매상들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3년 3월 혼합 와인에 관한 표준을 폐지하고 2006년 5월에 새로운 와인 표준을 제정하여 2008년 1월에 최신품국가표준 강제 시행 등 와인업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했다. 최신품국가표준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불량 와인을 퇴출시키고, 수입 와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와인산업을 활성화시켰다.

2012년 4월 ‘삼공소비’를 제한하고, 같은 해 12월 ‘금주령’ 등이 제정됨으로써 프리미엄 와인 시장의 판매 규모가 축소되고 수요도 크게 줄었다. 그 결과 중국 자국 와인과 수입 와인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업계 정비라는 기회를 가져다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와인업계는 대중소비시장을 주목하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 요인이다. 2019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4조 36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연간 1인당 GDP는 10,276달러로 전년보다 6.1% 증가해 중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중국 국민의 소득 수준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중 소비를 크게 촉진시켰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와인업계도 활력을 띄기 시작했고 품질 좋고 가성비가 높은 수입 와인이 중국 시장에 줄지어 진입했다. 와인 생산업체들의 혁신으로 원가가 낮아지면서 운영비도 낮아지고 판매가격도 더 합리적으로 바뀌면서 와인 수요도 빠르게 늘어났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수입

17) 韩永奇·刘世松, 「2015年我国葡萄酒产业将进入新的发展平台」, 『市场经济与价格』, 6, 2015, pp.45-48.

18) 贾衍哲, 『进口葡萄酒市场分析及营销策略研究』, 西北农林科技大学硕士论文, 2018, pp.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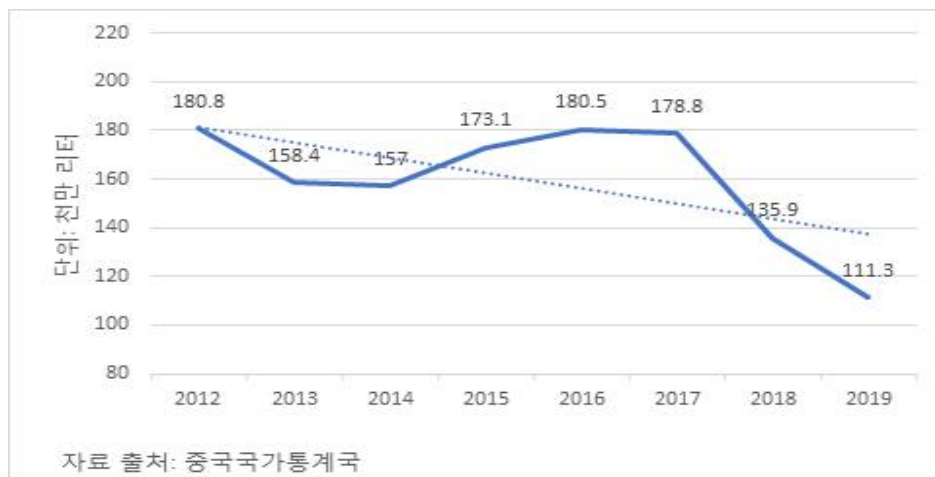
관세 감면, 환불 등 장려 정책도 수입 와인의 중국 진출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셋째, 사회적 요인이다. 중국의 포도재배와 포도주 제조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지만, 현대적 개념의 와인이 중국 국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온 것은 개혁개방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와인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이 부족해 와인을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심지어 와인을 수입품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와인의 분류를 비롯한 와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¹⁹⁾ 그래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와인 소비를 하나의 유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인은 바이주나 맥주 등을 주로 마셔왔기 때문에 와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맛 또한 익숙지 않았다. 게다가 와인이 상대적으로 비싸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중국 대중시장의 보급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매체의 와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와인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와인이 건강에 유익하고 여성들의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주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와인의 중국 시장 보급에 큰 도움이 되었다.

넷째, 기술적 요인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의 와인이 아직은 수입 와인에 비해 양조 기술과 품질 등에 있어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²⁰⁾

4) 수입 와인의 현황

<그림4> 2012~2019년 중국의 와인 시장 소비량 변화 추이



19) 张建生·李卫, 「开发进口葡萄酒本土化 3.0 时代」, 『新食品』, 25, 2016, pp.72-75.

20) 詹丽·周鑫·张小月, 「新食品葡萄酒消费者的食品安全认知与消费行为——国产葡萄酒与瓶装进口」、「散装进口葡萄酒的比较」, 三峡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38(1), 2016, pp.64-68.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와인 소비량은 2012~2019년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전체 소비량은 중국 자체 생산량을 웃돌았다. 그만큼 중국의 수입 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2019년 중국의 와인 소비량은 약 11억 1,300만 리터로 2018년의 13억 5,900리터보다 18.10% 줄었다.

중국의 와인 수입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빠르게 성장하였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한 지 4년이 지난 2005년에 와인은 실제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초기의 주요 수입품은 단연 프랑스 와인이 압도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보르도 와인의 인기가 엄청났으며, 그밖에 소량의 부르고뉴 와인, 론 와인, 샴페인도 수입되었다. 그리고 유명한 이탈리아 와인도 수입되었다.

관세의 변화는 수입 와인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했다. 2012년 뉴질랜드는 중국에 무관세로 와인을 수출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2015년에는 칠레, 2018년 조지아, 2019년 호주로 확장되었다. 몰도바와는 2020년 12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와인 수입의 비용과 양이 매년 12%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표3>과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들어 경제발전 속도가 둔화되고 금주령과 팔항규정 등의 제한조치로 인해 2013년과 2014년은 2012년에 비해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큰 폭으로 반등하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감소하였다.²¹⁾

<표3> 2010-2019년 중국의 와인 수입량과 수입액

연도	수입량(천 리터)	전년대비 증감	수입액(천 달러)	전년대비 증감
2010	286,040	65.46%	797,125	74.29%
2011	365,535	27.79%	1,436,334	80.19%
2012	394,282	7.86%	1,580,832	10.06%
2013	376,690	-4.46%	1,554,580	-1.66%
2014	384,105	1.97%	1,518,519	-1.69%
2015	555,088	44.51%	2,038,528	34.24%
2016	638,140	14.96%	2,364,534	15.99%
2017	745,364	16.80%	2,797,576	18.31%
2018	683,890	-8.25%	2,855,243	2.06%
2019	609,952	-10.81%	2,444,670	-14.38%

*출처: FAOSTAT

21) <표3>과 <그림5>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사이트(<http://www.fao.org/faostat/en/#home>)에서 자료를 추출해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그림5> 2010-2019년 중국의 와인 수입량 및 수입액



2019년 중국의 와인 수입량은 6억 952만 리터에 달했다. 이는 2018년 6억 8,389만 리터보다 10.81%, 2017년 7억 4,536만 리터보다 18.17% 감소한 수치이나, 2010년과 비교하면 113.24%, 2014년과 비교하면 58.80%가 증가한 것이다. 중국산 수입 와인의 약 20%는 벌크와인이며 나머지는 보틀 와인이다.²²⁾

중국의 2019년 와인 수입액은 총 24억 4,467만 달러로 2018년보다 -14.38%, 2017년보다는 -12.61%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의 7억 9,713만 달러보다 206.69%, 2014년의 15억 1,852만 달러보다는 60.99% 증가한 액수이다.

중국은 다른 많은 국가에 비해 과도한 와인 제조비용으로 인해 자국 와인 생산의 양과 품질의 향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당연히 중국산 와인에 대한 만족도 역시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저렴한 와인에 대한 중국인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는 하지만 인지도와 포장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고급 와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입 와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2018년과 2019년에는 수입이 감소하였다. 2018년 경제 침체의 압력과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수입 및 소비 속도가 줄어들었다. 2018년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와인 수입량이 감소하였는데, 수입량은 전년대비 8.25% 감소한 6억 8,389만 리터였다. 2019년에는 수입량이 또 다시 10.81% 감소한 6억 995만 리터를 기록하였고, 수입량은 -14.38% 감소한 24억 4,467만 달러를 기록했다.

5) 국가별 수입 와인 현황과 분석

이제 중국이 수입하는 와인을 주요 원산지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3년(2019, 2018, 2017)을 기준으로 중국이 수입하는 와인의 수입액과 수입량을 국가별로

22) 「중국 와인시장 꿰뚫어 보기」, <https://cellar.asia/ko/wine/china-wine-market-analysis/>

간단히 정리하면 <표4>와 <표5>와 같다.²³⁾

<표4> 2019년 중국의 와인 수입액 상위 10위 국가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19년	점유율	전년대비	2018년	전년대비	2019/2015 대비
1	호주	866,426	35.44%	10.95%	780,890	7.32%	90.95%
2	프랑스	702,575	28.74%	-34.22%	1,068,039	-3.25%	-22.20%
3	칠레	346,018	14.15%	-8.03%	376,223	14.45%	48.25%
4	이탈리아	156,434	6.40%	-7.33%	168,801	4.36%	55.85%
5	스페인	145,224	5.94%	-14.29%	169,436	-12.60	12.04%
6	미국	38,584	1.58%	-49.07%	75,764	-7.38%	-32.20%
7	아르헨티나	27,184	1.11%	3.83%	26,180	17.86%	32.30%
8	포르투갈	24,853	1.02%	-1.25%	25,168	6.95%	47.56%
9	남아공	22,595	0.92%	-36.51%	35,588	20.48%	-44.27%
10	독일	22,333	0.91%	-14.12%	26,004	23.30%	17.08%
중국 전체		2,444,670	100.00%	-14.38%	2,885,243	20.61%	19.92%

*출처: FAOSTAT

<표5> 2019년 중국의 와인 수입량 상위 10위 국가

(단위: 천 리터)

순위	국가	2019년	전년대비	2018년	전년대비	2017년	2019/2015 대비
1	칠레	153,292	-8.30%	167,166	28.42%	130,174	4.30%
2	호주	146,933	-10.52%	164,214	14.68%	143,196	114.19%
3	프랑스	145,430	-18.94%	179,414	-22.02%	230,067	-15.39%
4	스페인	64,776	-6.95%	69,613	-47.94%	133,711	-16.59%
5	이탈리아	37,298	3.29%	36,109	-3.03%	37,238	29.29%
6	아르헨티나	12,640	143.12%	5,199	3.24%	5,036	145.77%
7	미국	8,696	-32.12%	12,810	1.52%	12,618	-31.85%
8	포르투갈	7,513	-7.52%	8,124	-14.87	9,543	11.16%
9	남아공	6,909	-49.18%	13,595	-16.04%	16,192	-41.25%
10	독일	4,216	-19.05%	5,208	11.02%	4,691	-5.81%
중국 전체		609,952	-10.81%	683,890	-8.25%	745,364	9.88%

*출처: FAOSTAT

23) <표4>와 <표5>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사이트(<http://www.fao.org/faostat/en/#home>)에서 자료를 추출해 필자가 정리하였다. 그밖에도 유용한 자료로 2017년 <https://www.thedrinksbusiness.com/2018/01/chinas-top-10-wine-importing-countries-in-2017/>, 2018년 https://www.sohu.com/a/298388548_105404 및 <https://www.thedrinksbusiness.com/2019/02/chinas-top-10-wine-importing-countries-in-2018/>, 2019년 <http://www.yhj9.com/article-6381.html> 등을 참조하였음.

2018년까지 수입액과 수입량 기준 모두 부동의 1위 국가는 프랑스였다. 2018년 기준 와인 수입액은 10억 6,804만 달러이고, 수입량은 1억 7941만 리터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2017년의 10억 5천만 달러보다 3.08% 줄었고, 수입량은 2017년의 2억 1,786만 리터보다 21.06%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프랑스는 2018년 수입액 기준 중국 와인시장점유율 37.02%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수입량과 수입액이 모두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 27.06%를 차지한 호주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2019년에는 호주에 추월당해 2위로 하락하였다. 수입량에서는 칠레,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와인 수입액은 7억 258만 달러(전년대비 -34.22%), 수입량은 1억 4,543만 리터(-18.94%)를 기록했다. 2018년과 비교하여 수입액 측면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나라들 중 하나로 미국(-49.07%)과 남아프리카공화국(-36.51%)에 이어 3위이다.

실제로 프랑스 와인의 중국 수입은 5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수입액에서는 22.20%, 수입량에서는 15.39%의 감소를 보였다. 프랑스 와인은 여전히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와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는 2019년 와인 수입액 기준으로 프랑스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와인 수입국이 되었다. 와인 수입량은 1억 6,421만 리터로 전년대비 10.52% 감소했으나, 수입액은 8억 6,643만 달러로 10.95%의 증가를 보였다. 수입액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27.06%에서 35.44%로 상승했다. 수입량이 줄었음에도 수입액이 늘었다는 것은 호주산 와인의 평균 수입가격이 올라갔음을 의미한다. 즉 그전보다 가격이 비싸고 질 좋은 와인을 위주로 수입했다는 것이다.

2018년 와인 수입액은 7억 8,089만 달러이고, 수입량은 1억 6,421만 리터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2017년의 7억 2,761만 달러보다 7.32% 증가했고, 수입량은 2017년의 1억 4,320만 리터보다 14.68% 늘었다. 이에 앞서 2017년에는 와인 수입액이 2016년의 5억 7,129만 달러에 비해 27.36%, 수입량이 2016년의 1억 486만 리터보다 36.56%의 커다란 증가를 보인 바 있다.

호주 와인의 중국 수입은 5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수입액에서는 90.95%, 수입량에서는 114.19%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호주 와인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호주산 와인 관세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2.8%의 관세가 적용되었고, 2019년부터는 무관세이다. 따라서 호주산 와인의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20년 들어 호주가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연합체)에 참여하고 코로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과 외교적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는 반덤핑 조사를 구실로 2020년 11월 28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해 사실상 최대 200%

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당분간 호주산 와인의 중국 수출은 밝은 전망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와인 수입액 기준 3위는 칠레이다. 2019년 와인 수입액은 3억 4,602만 달러이고, 시장점유율은 14.15%이다. 와인 수입량은 1억 5,329만 리터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수입량이 호주나 프랑스에 비해 각각 4.33%와 5.41%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은 호주의 39.94%, 프랑스의 49.2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중국이 수입하는 칠레 와인의 상당 부분이 병에 들어간 보틀 와인이 아니라 대형 용기에 담긴 벌크 와인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싼 벌크 형태의 와인을 들여와 현지 브랜드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에서 칠레 와인의 성장 원인으로 가격경쟁력, 자유무역협정, 적극적인 캠페인을 꼽을 수 있다. 그 중 중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이 2006년 10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됨으로써 칠레 와인에 대한 관세율이 2013년 2.8%, 2014년 1.6%으로 인하되었다가 2015년부터는 무관세가 되었다. 실제로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후로 칠레 와인 수입액은 2005년 1,254만 달러에서 2006년 2,131만 달러로 전년대비 69.94%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4,541만 달러로 전년대비 113.05%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되어 무관세가 된 2015년 2억 3,340만 달러, 2017년 3억 2,874만 달러를 지나 2018년에는 3억 7,622만 달러로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무려 1,665.14%, 2015년과 비교하면 37.96%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오히려 8.03% 감소했다.

2019년의 수입량은 2018년보다 8.30% 감소했고, 2018년은 2017년보다 28.42%의 증가를 보였다. 2015년의 1억 3,954만 리터와 대비하면 2018년은 8.18%로 증가하였지만, 2019년은 2015년과 거의 같은 수치(-0.43%)를 기록했다. 수입량의 증가가 미미한 것에 비해 수입액의 증가가 큰 것은 수입되는 칠레 와인 중 보틀 와인이 비중이 커지고 그전보다 가격이 높은 질 좋은 와인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는 2018년에 수입액 기준으로 스페인을 제치고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올랐으며, 2019년에도 4위를 유지했다. 2019년 기준 와인 수입액은 1억 5,643만 달러로 2018년의 1억 6,880만 달러보다 7.33% 감소했으나, 시장점유율에서는 2018년의 5.85%보다 증가한 6.40%를 기록했다. 2018년도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4.36% 증가를 보였고, 이에 앞서 2017년도에는 1억 6,175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21.98%의 증가를 보인 바 있다. 와인 수입량은 2019년 3,730만 리터(전년대비 +23.3%), 2018년 3,611만 리터(-3.03%), 2017년 3,724만 리터(+3.13%)를 기록했다.

스페인도 수입액 기준으로 수년간 4위 자리를 지켜왔으나, 주로 수입량의 감소로 인해 2018년에 5위로 밀려났다. 2019년에도 5위를 기록했는데,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5.94%이다. 2019년 와인 수입액은 1억 4,522만 달러로 2018년 1억 6,944만 달러보다 14.29%의 감소를 기록했고, 2018년의 수입액은 다시 2017년의 1억 9,387만 달러보다 12.60%가 감소해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들어 스페인 와인의 수입량이 줄고 있다. 2017년 와인 수입량은 1억 3,371만 리터였으나 2018년에는 6,961만 리터로 전년대비 47.94%의 큰 낙폭을 보였고, 2019년에는 6,478만 리터로 다시 6.95%의 감소를 기록했다. 2019년을 2015년과 비교하면 16.59%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9년에는 스페인이 4위, 이탈리아가 5위이다(2019년 기준).

수입량에서는 이탈리아보다 1.74배 이상인데 수입액은 오히려 이탈리아보다 1,121만 달러(7.72%)가 적었다. 이는 스페인 와인의 평균 수입 가격이 이탈리아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스페인 보틀 와인의 평균 수입 가격은 리터당 2.65달러로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따라서 스페인 와인은 너무 달고 오크 맛이 날 뿐만 아니라 값이 싼 저급 와인이 대부분이라는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스페인의 대중국 와인 수출산업의 과제라 할 수 있다.²⁴⁾

미국은 2019년 와인 수입액은 3,858만 달러, 수입량은 8,696만 리터를 기록했다. 수입액 기준 6위, 수입량 기준 7위에 해당한다. 수입액은 2018년의 7,576만 달러보다 49.07%나 줄어들어 2019년 수입액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2018년에도 전년대비 7.38%의 감소를 보인 바 있다. 수입량은 2018년 1,281만 리터를 기록해 전년대비 소폭(1.52%)의 증가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870만 리터로 32.12%의 감소를 보였다. 이로써 2019년 수입량 하락 2위를 차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2019년의 수입액과 수입량은 각각 32.20%와 31.58% 감소하였다. 미국 와인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역시 2018년 2.63%, 2019년 1.58%로 많이 축소되었다(수입액 기준). 미국산 와인의 수입액 감소에는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크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와인에 대한 수입 관세를 39%로 인상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에 수입액 기준 7위, 수입량 기준 6위를 차지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에 와인 수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로 수입량 1,264만 리터를 기록해 전년대비 143.12%의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2019년 와인 수입액은 2,718만 달러로 전년대비 3.83% 증가했다. 수입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1.11%이다.

포르투갈은 2019년 수입액과 수입량에서 모두 8위를 기록했다. 포르투갈은 2017년 수입액 기준 9위, 수입량 기준 8위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상위 10위 국가에서 밀려났다가 2019년에 다시 진입하였다. 포르투갈 와인은 2019년에 수입액 2,485만 달

24) <https://www.mersolluo.com/spanish-wine-in-china/> [2020.12.18]

리(전년대비 -1.25%), 수입량 751만 리터(-7.52%)를 기록했고, 시장점유율은 1.02%를 차지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9년 수입액과 수입량에서 모두 9위를 기록했다. 20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국에서의 판촉 활동, 중국 내 주요 도시와 홍콩에서의 각종 시음 행사를 개최한 결과 모든 공급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 와인의 수입액이 2017년보다 20.48% 증가한 3,559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7년과 2018년은 7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9년에 들어 수입량 하락 최대, 수입액 감소 2위를 기록하면서 9위로 주저앉았다. 와인 수입액은 2,260만 달러(-36.51%), 수입량은 691만 리터(-49.18%)를 기록했다. 시장점유율은 0.92%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와인은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수입액 44.27% 감소, 수입량 41.25%의 감소를 보였다.

10위는 독일이 차지했다. 2018년 기준 와인 수입량은 517만 리터(+12.44%), 수입액은 2,580만 달러(+23.85%)를 차지하면서 상위 10위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2019년에 수입량 하락 3위를 기록했다. 독일은 와인 수입량 422만 리터(-19.05%), 수입액 2,233만 달러(-14.12%)를 기록했으나 10위 자리를 지켰다. 2019년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0.91%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수입와인을 원산지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2019년 수입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호주 35.44%, 프랑스 28.74%, 칠레 14.15% 등으로 상위 세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8.33%에 이른다. 그 뒤로 이탈리아 6.40%, 스페인 5.94%, 미국 1.58%, 아르헨티나 1.11%, 포르투갈 1.02%, 남아프리카공화국 0.92%, 독일 0.91%의 순이다.

최근 5년간(2015~2019)을 비교하면 중국의 와인 총 수입액은 19.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한 10개 국가들 중 와인 수입액에서 증가를 보인 국가는 호주(90.95%)가 1위이며,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55.85%), 칠레(48.25%), 포르투갈(47.56%), 아르헨티나(32.30%), 독일(17.08%), 스페인(12.04%)의 순이다. 그에 비해 수입액 감소를 보인 국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44.27%), 미국(-32.20%), 프랑스(-22.20%)가 있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와인 총 수입량은 9.8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아르헨티나(145.77%), 호주(114.19%), 이탈리아(29.29%), 포르투갈(1.16%), 칠레(4.3%)가 증가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41.25%), 미국(-31.85%), 스페인(-16.59%), 프랑스(-15.39%), 독일(-5.81%)은 감소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28년 만에 맞은 최악의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하락 등으로 인해 최근 2018년과 2019년에는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4. 결론 및 전망

지금까지 세계 와인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수입 와인 시장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 와인 현황 속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기준은 포도재배 면적, 와인 생산량, 와인 수출, 와인 수입, 와인 소비량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 다음으로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에서의 와인 시장의 발전과 수입 와인 시장의 발전을 단계별로 간략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중국에서 수입 와인 시장이 발전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그런 다음 중국의 수입 와인 현황을 개관한 다음 중국의 수입 와인 현황을 원산지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간단히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2019년 현재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와인소비국(17억 8천만 리터, 전체의 7.3%)이며, 와인 수입액은 세계 4위(24억 4,467만 달러, 6.6%)이다. 포도재배 면적 역시 계속 순위가 올라가 현재 세계 2위(96만 6천 헥타르, 11.5%)이며, 와인 생산량은 세계 10위(8억 3천만 리터, 3.2%)이다. 반면 와인 수출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크지 않아 세계 25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와인 수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2004년부터 와인에 대한 수입 관세가 44.6%에서 14%로 낮아지면서 와인 수입이 더욱 증가하였는데, 초기에는 주로 고품질 와인이 중심이었다. 부자 중국인이 늘면서 프리미엄급 와인에 대한 수요층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수입 와인은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었다. 중국 와인 시장의 가능성을 간파한 프랑스를 선두로 외국의 와인 생산국들은 중국에 와인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썼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거치면서 중국인들의 소비경향이 품위, 고상함, 차별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와인 수입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2012년의 경제 둔화와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고급 전통주의 소비 침체뿐만 아니라 와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발전 속도가 점차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및 외국의 와인업체들은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적절히 활용하고, 와인소비층으로 대중들을 공략하면서 중저가 와인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이후 수입 와인산업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는 경제 침체의 압력과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와인 수입 및 소비 속도가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더해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수입하는 와인의 최대 원산지는 호주, 프랑스, 칠레,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의 순이다. 2019년 수입액 기준 국가별 중국내 와인 시장점유율은 호주 35.44%, 프랑스 28.74%, 칠레 14.15% 등으로 상위 세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8.33%에 이른다. 그 뒤로 이탈리아 6.40%, 스페인 5.94%, 미국 1.58%, 아르헨티나 1.11%, 포르투갈 1.02%, 남아프리카공화국 0.92%, 독일 0.91%의 순이다.

최근 5년간(2015~2019)을 비교하면 중국의 와인 총 수입액은 19.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와인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 중 와인 수입액에서 증가를 보인 국가는 호주(90.95%)가 1위이며,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55.85%), 칠레(48.25%), 포르투갈(47.56%), 아르헨티나(32.30%), 독일(17.08%), 스페인(12.04%)의 순이다. 그에 비해 수입액 감소를 보인 국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44.27%), 미국(-32.20%), 프랑스(22.20%)가 있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와인 총 수입량은 9.8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아르헨티나(145.77%), 호주(114.19%), 이탈리아(29.29%), 포르투갈(1.16%), 칠레(4.3%)가 증가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41.25%), 미국(-31.85%), 스페인(-16.59%), 프랑스(-15.39%), 독일(-5.81%)은 감소했다.

중국은 2019년 기준 와인 소비량이 17억 8천만 리터로 세계 5위의 와인 소비국이지만 와인을 마시는 인구는 전체의 3%에 지나지 않는다. 1인당 연간 와인 소비량은 1.5리터로 세계 평균 3.7리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와인시장이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치상으로 중국이 1인당 평균 3리터의 와인을 마신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미국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수입 와인 수와 금액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수요 다양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은 수입 와인에 기회이자 도전이므로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의 와인소비자들의 요구와 수요 역시 다양해질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중국의 와인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가 앞으로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과 중국의 와인 산업이 풀어야 할 과 중국의 수입 와인 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노정희·채군죽, 「중국 와인소비자 유형에 따른 국제주류전시회 서비스품질의 인지에 관한 연구」, 『貿易 研究』, 한국무역연구원, 제11권 3호, 2015.
- 제 악, 『중국소비자의 와인 구매행동에 대한 비교연구: 중국산 와인, 외국산 와인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20.
- 짱하이다, 『와인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구매행동 차이연구: 중국 상해지역 와인소비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12.
- 한은진·노정희, 「중국인 와인소비자의 와인수요 결정요인 분석」, 『관광경영연구』, 제57집, 관광경영학회, 2013.
- 贾衍哲, 『进口葡萄酒市场分析及营销策略研究』, 西北农林科技大学 硕士论文, 2018.
- 高全朋, 「未来两年进口葡萄酒市场的发展趋势」, 『电子制作』, 5, 2013.
- 王德惠, 「中国进口葡萄酒的二十年」, 中国葡萄酒资讯网, 2016. <http://www.winesinfo.com/html/2016/7/654-66228.html> [2020.12.18]
- 王秋芳, 「葡萄酒业五十年的光辉成就」, 『酿酒』, 5, 1999, pp.15-23.
- 刘世松, 「中国当代葡萄酒产业发展阶段研究」, 『酿酒』, 3, 2015, pp.5-9.
- 刘一博·朱欣悦, 「贴牌进口葡萄酒扰乱市场」, 『食品界』, 5, 2015, pp.50-51.
- 李甲贵·贾金荣·张静, 「进口关税下调对我国葡萄酒市场的初步影响」, 『酿酒科技』, 1, 2008, pp.110-112.
- 张建生·李 卫, 「开发进口葡萄酒本土化3.0时代」, 『新食品』, 25, 2016, pp.72-75.
- 赵悦汝, 『进口葡萄酒在中国市场的营销策略研究』, 天津大学 硕士论文, 2012.
- 詹 丽·周 鑫·张小月, 「葡萄酒消费者的食品安全认知与消费行为——国产葡萄酒与瓶装进口、散装进口葡萄酒的比较」, 『山峡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38(1), 2016, 64-68.
- 韩永奇·刘世松, 「2015年我国葡萄酒产业将进入新的发展平台」, 『市场经济与价格』, 6, 2015, pp.45-48.
- 货泰证券, 『进口酒高速增长, 市场仍显碎片化』(证券研究报告), 2017. <https://crm.htsc.com.cn/doc/2017/10720102/3958985b-8f45-4474-9d71-1355ccc02a8f.pdf> [2020.12.18]
- Business Chef, “Top 10: Wine Producing Countries in Europe”, 2020.10.29. <https://www.businesschief.eu/top10/top-10-wine-producing-countries-europe> [2020.12.18]
- Daniel Workman, “Top Wine Importing Countries”, *World's Top Exports*. <http://www.worldstopexports.com/top-wine-importing-countries/> [2020.12.18]
- Joyce Chepkemoi, “The Top Wine Producing Countries of the World”, Worldatlas.com, 2017.08.01. <https://www.worldatlas.com/articles/the-top-wine-producing-countries-of-the-world.html> [2020.12.18]
- OIV, “2019 Statistical Report on World Vitiviniculture”, 2019. <http://oiv.int/public/medias/6782/oiv-2019-statistical-report-on-world-vitiviniculture.pdf> [2020.12.18]
- OIV, “State of the World Vitivincal Sector In 2019”, 2020.04. <http://www.oiv.int/public/me>

dias/7298/oiv-state-of-the-vitivinicultural-sector-in-2019.pdf [2020.12.18]

Victor Kiprop, "10 Leading Wine Importing Countries In The World", Worldatlas.com, 2020.02.09. <https://www.worldatlas.com/articles/10-leading-wine-importing-countries-in-the-world.html> [2020.12.18]

<http://www.fao.org/faostat/en/#compare> [2020.12.18]

<https://cellar.asia/ko/wine/china-wine-market-analysis/> [2020.12.18]

<https://chinawinecompetition.com/en/blog/insights-1/top-wine-importing-countries-of-china-172.htm> [2020.12.18]

<https://www.mersolluo.com/spanish-wine-in-china/> [2020.12.18]

<https://www.putaojiu.com/news/201910278939.html> [2020.12.18].

<https://www.thedrinksbusiness.com> [2020.12.18]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葡萄酒, 进口葡萄酒, 葡萄酒市场, 红酒消费, 葡萄酒进口量				
Key Words	영문	Wine, Imported Wine, Wine Consumption, Wine Market, Wine Production				
<div><div>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Imported Wine Market in China</div><div>Kim, Won</div><div><p>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hinese wine market, rapidly growing in the global wine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imported wine. China is currently the world's fifth largest wine market in terms of wine consumption and the world's second largest wine market in terms of grape cultivation. In particular, the wine market expand due to economic growth, making it the stagnant global wine industry now and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 at the current status of wine in the world, focusing on the area of grape cultivation, wine production, and wine consumption, overall characteristics of Chinese wine market,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mported wine market, and major wine importers. Next, by looking at the wine culture and consumption trends of the Chinese, this research noted the future and development of the imported wine market in China.</p><p>Accordingly, this study will help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wine industry, and furthermore, providing wine information as one of the important cultural factors in Chinese society.</p></div></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원 / 金元 / Kim, Won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유럽지역통상학과				
	Em@il	kimwon@bufs.ac.kr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20	심 사 일	2020.12.16	게재확정일	2020.12.20